

웃둥 보살 불둥 거사 <3>



아니, 월급을 월급으로 주셔야지 함인권으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방백만 원이치 사는데 함인 30%면 금액으로 얼마야?

30만원...?

그래! 이거 함인야바로 30만원 액함을 하는 거라고~

그런정한 육음이나 줘는데... 거스름돈 받아야되잖아아~

가가 마하...!

아픈 월급 준거야~

지금 아이들 함인도 못내고 있는 판국에 이런 반지 함인권이 무슨 소용안니까...

깜짝이야 웃둥보살 키편이 우리 집에 왔어!

계셨네...?

사람들이 고아온경 목라이- 외로운 이 오니의 아이들 하늘은 알아주시게...

와... 내?...

하하 그러 나... 더 당고 안있는 사탕수수를 깨배하는 쪽에 쌀 얻기 아니 바지기가...

그래! 어찌?

하하 내기 라이야 자신있게 좋아 좋아! 수확하는 날 보자구 쌀 얻기 아니 준비하고~

비켜 비켜~

아이쿠 내세~

하하하 저런 원시적인 방법을 쓰다니! 어린 업지~

생탈을 등북 부러이거! 단맛을 위해서..

어느덧 수확하는 날.. 당고 맛있게 자랐을 거야~

와~ 단대! 쌀 얻기 아니 주시게나!

하하도 무시하시게...!

꽃도 좀 바르고...! 사탕수수가 주인장 만나서 호감하는 구나!

헉! 이...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리도 잘 해주었 건만 전부 밀라 죽다니!

웁! 사탕수수들 부러면서 복 밟길 바라다니...!

사탕수수를 망친 사람 [백유경(百喻經)]



옛날 두 사람이 사탕수수를 심으며 서로 맹세했다. "좋은 종자를 심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좋지 못한 종자를 심은 사람에게는 무거운 벌을 주자." 그때 그 중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사탕수수는 아주 달다. 만일 즙을 짜서 나무에 쏟고는 맛이 좋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도리어 종자만 못 쓰게 되고 많은 사탕수수를 잃어버렸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같이 재물과 권력을 위해 힘을 다하고, 세력을 빙자해 백성들을 험박하고 재물을 빼앗는다. 그것으로 복의 근본을 짓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그것은 마치 사탕수수를 짜서 이것저것 모두 잃는 것과 같다.'

옛 광화의 세계

삼독의 불을 끄고 열반에 들라 항복화룡(降伏火龍)

불암사편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삼화 중 한 장면으로 마가다국의 유명한 수행자 집단인 가섭 삼형제를 교화하기 위해 독룡을 항복시키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가섭을 만나 독룡의 방에 들기를 청하고, 독룡의 방에서 독룡을 항복시켜 독룡을 작게 만들었다. 발우에 독룡을 담아 가섭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묘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섭 삼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은 불법에 귀의했고, 불교는 거대한 교단을 형성해 본격적인 교화활동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석씨원류에 부처님은 배화교도였던 가섭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을 위해 마가국 수도였던 왕사성으로 향하다 가야산에 이르러 '타오르는 불의 법문'을 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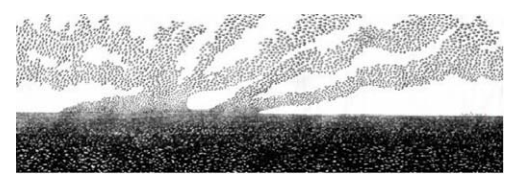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비치는 형상이 불타고 있다. 형상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불타고 있다. 어떤 불에 의해 타고 있는가? 탐욕·분노·어리석음의 불에 의해 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불길들은 왜 일어나는가? '나' 스스로가 일으킨 망상이 부식들이 되고 불씨가 돼 어리석음의 검은 연기를 피워 올리고 탐욕과 분노의 불길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중생들은 모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세가지 독의 거센 불길로 인해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세계를 윤회하고,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번민 속에서 헤어지지 못하게 되느니라. 비구들이여,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세가지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는 것은 오직 '나'에 대한 애착 때문이니, 세가지 불을 멸하려면 먼저 '나'에 대한 애착을 끊어 버려야 한다. '나'에 대한 애착을 끊을 수 있게 되면 세가지 불길은 스스로 꺼지고 윤회의 수레바퀴는 저절로 멈추며, 모든 괴로움은 자취 없이 사라지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불의 법문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을 끄고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겠다.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항복화룡(降伏火龍) 불암사편 1673년(간행: 반곡(半郭) 27.2 x 18.0cm)

히허당의 세상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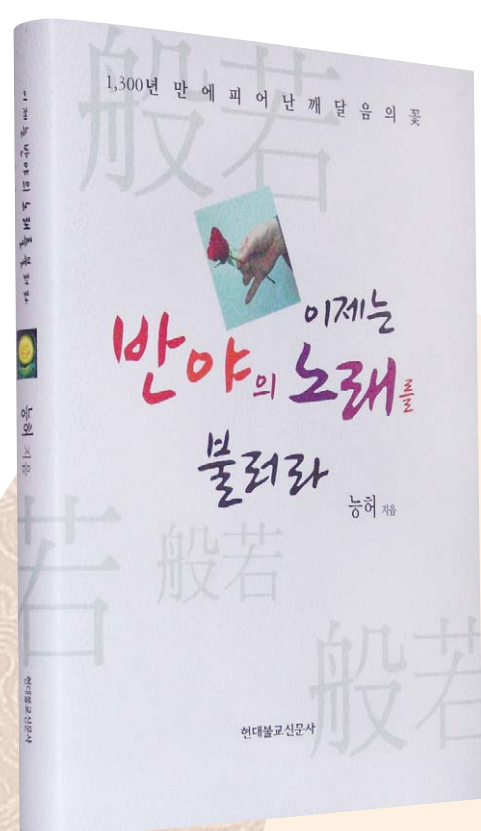
■ 만행일기(始)

땅 끝 마을, 밤은 나그네를 업신여긴다. 그러나 밤은 보일도 기는 마지막 배가 땅기처럼 내려 앉고 나그네를 가장 나그네답게 해 준다. 어둠이 바다를 잠 재우며 슬며시 나를 밀쳐낼 때에, 그리고 다시 문신을 새겨 넣었다. 밧줄에 모자진 수많은 길들이 내 몸에 새겨진 문신을 꺼내었다. 바닷길 역만리는 왼발에 묻고 하늘 길 역만리는 오른발에 묻네.

▶ 전곡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이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이문 02)737-0695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破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행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얕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경성 심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절했된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중요로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증명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별링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추위가 닦쳐왔다.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람살이 오늘 나에게 들려 버렸구나!"

- 법문 중에서

- 본문 중에서